

金裕貞의 作品論攷

—30年代 現實認識과 受容姿勢—

趙 鎮 基

<內 容>

- | | |
|----------------|----------------|
| I. 序 論 | 2. 金鏞을 通한 現實認識 |
| II. 作品의 系譜와 性格 | 3. 都市를 通한 現實認識 |
| 1. 農村을 通한 現實認識 | III. 結 論 |

I. 序 論

韓國 現代 文學史에 있어서 1930年代는 所謂 黃金期라 할만큼 作家의 數에 있어서나 作品의 質的 面에서나 두드러진 時期임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그 中에서도 小說의 경우는 더욱 두드러진 感이 있다. 그런데 1930年代의 代表的 作家로 李箱, 李孝石, 金裕貞을 손꼽고 있음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以上의 세 作家의 作品世界는 判異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그 結果 任重彬은 그들 세 사람의 作家의 特性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1930年代에 우리는 세 사람의 記念碑的 作家를 가지고 있다. 文學史的으로 보아 成長期라 할만한 30年代의 代表的 小說家로 李孝石, 李箱 그리고 金裕貞을 든다. …中略… 한마디로 李箱은 <아래>를 보려 했고 孝石은 <위>를 보려 했으나 裕貞은 <옆>을 보려 했다. 李箱의 視線이 自我意識의 地下坑道에 집착되었다면, 孝石의 그것은 幻想的 超越의 天上界로 향하였다. 어느 편이냐 하면 金裕貞은 철두 철미 地上的인 것을 추구한 作家로서 그의 視線은 大地에 살붙이고 살아가는 生活人에 집중된다.⁽¹⁾

이상의 陳述에서 보이듯이 裕貞의 文學世界를 강렬한 現實認識의 世界라는 지적파는 달리 그의 論述은 一般的으로 땊은 사람의 그것처럼 해학적인 側面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1) 任重彬: 否定의 文學, 한일문고刊, p. 147

金裕貞의 作品에 있어서 해학적인 要素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것은 자칫하면 作品自體를 單純化 시키거나 作品의 表皮的 評價에 머물 수 있는 危險을 多分히 內包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金裕貞의 文學은 고작 <35年代의 유익한 유우며 作家>⁽²⁾乃至는 <土俗의 리리시즘>⁽³⁾이란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러한 結論은 滑稽의 美的 効果를 忘却한데서 緣由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滑稽란 崇高美의 엄숙성을 否定하는 技巧일 뿐 아니라 重壓感이나 苦痛으로부터 解放하는 効果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은 上流層의 美學이라기 보다는 下流層의 美學이며, 융합이기 보다는 對立이며, 빈번히 공격성을 延文學⁽⁴⁾이라는 點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滑稽의 美的 効果를 고려할 때 金裕貞의 文學에 있어서 作者의 主題意識은 단순히 유모러스한 世界나 土俗의 리리시즘에 安着하지 않고 보다 現實과 밀착하여 下流層의 窮乏相을 告發하면서 곤질긴 對決을 보여 주고 있다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認識은 몇몇 論著에서 상당하게 解明되어지고 있다.⁽⁵⁾ 그러면서도 그들 대부분이 論著들이 한결같이 農村의 궁핍화라는 데만 머물려 있고 金鑛에 몰려든 離農의 問題나 都市의 궁핍화에는 外面하고 있다는 點과, 그들의 見解가 상당히妥當性을 지니면서도 몇 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래서 筆者는 以上의 論著들이 導出한 結論과 아울러 局部의 對象作品에서 벗어나 農村, 金鑛, 都市에 걸쳐 金裕貞文學에 나타난 現實認識의 樣相을 살펴 볼으로서 上記 論述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問題의 解明과同時に 그들 論著들이 가지고 있는妥當한 見解를 補完하려는데 本稿의 焦點이 있다.

II. 作品의 系譜와 性格

裕貞이 作品活動을 한 것은 1935年(27歲) 朝鮮日報 新春文藝에 소나비가 당選되면서부터 1937年(29歲) 死亡하기까지 고작 三年間에 不過하다. 그러

(2) 白鐵 : 朝鮮新文學思潮史, p. 112

(3) 金宇鍾 :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pp. 265~7 參照

(4) 申東旭 :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p. 153 參照

(5) 金允植, 김현운 『농촌 窮乏化 現象으로서 노름, 수탈, 賣春, 일확천금에의 꿈』이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韓國文學史, pp. 198~9) 申東旭教授는 社會構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表現한 것이라 하면서 <만무방>을 分析해 보이고 있으며(現代文學通卷 169, pp. 284~301) 金炳翼도 30年代의 궁핍화 現象을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文學思想通卷 22號 pp. 278~285)

나 짧는生涯를 살았고 짧은作家生活을 했지만 그의作品世界는 多樣한面貌를 보여 주고 있다. 그가 남겨 좋은 28篇⁽⁶⁾의 短篇은 農村, 金鑛, 都市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生活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作品을 素材에 依하여 分類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農村을 素材로 한 作品系列→소낙비(35年, 後에 「소나기」로 改題됨), 떡(35年), 만무방(35年), 산골(35年), 봄, 봄(35年), 산골 나그네(36年), 동백꽃(36年), 총각과 맹꽁이(36年), 안해, 놀, 가을 等

② 金을 素材로 한 作品系列→노다지(이 作品은 후에 〈金〉으로 바꿔 告.) 금 따는 콩밭(35年), 연기 等

③ 都市를 素材한 作品系列→두꺼비(35年), 이런 音樂會(36年), 夜櫻(36年), 貞操(36年), 슬픈 이야기(36年), 땅별(37年), 따라지(37년), 심청, 봄과 따라지 等

以上의 分類에 依하여 裕貞文學의 性格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農村을 通한 現實認識과 受容

(1) 30年代 現實과 農村

1920年代에서 1930年代에 이르는 時期는 日帝의 經濟的 약탈로 全民族이 窮乏化 現象이 휙쓸고 있었다. 그리하여 20年代에서 30年代에 걸쳐 궁핍화 현상은 文學의 重要한 素材乃至는 中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現象을 崔載瑞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고 있다.

現代作品의 取材에 있어서 벌써 그 作品의 意圖를 엿볼 수 있다. 取材에서 都會보다 農村, 知識人보다 農民, 富裕보다도 貧寒, 消費보다도 生產, 享樂보다는 受難이 늘 우세함을 가리켜 나는 現代 朝鮮文學의 경향이 實在의이라 한다. 이것은 朝鮮의 現實이 提供하는 움직일 수 없는 素材이다.⁽⁷⁾

이처럼 文學樣相의 變貌는 文學이 社會의 反映이라 할 때 當然한 일이다. 그리하여 崔曙海, 玄鎮健, 金裕貞 等 술한 作家의 作品에서 現實의 窮乏化를 目睹하게 된다.

30年代 궁핍화 現象을 于先 農村에 限定시켜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日本은 東拓 設立 以後 韓國農土를 탈취하기가 始作하여 1910年에 11,035町이던 것이 10년 後인 1921年에는 99,480町⁽⁸⁾에 이르는 大地主로 군림하였으

(6) 金裕貞作品目錄, 文學思想通卷 22號, p. 318

(7) 崔載瑞: 文學과 知性, pp. 120~1

(8) 金文植外著: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刊, p. 33

나 韓國農民이 地主에서 小作農으로 轉落은 必至의 事實이다. 이러한 事情을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表 1】

朝鮮農民의 階級的 轉落

(단위 : 千戶)

階層 年次	自 作 農			兼 小 作 農			純 小 作 農		
	戶 數	增 減	戶 數	增 減	戶 數	增 減	戶 數	增 減	戶 數
1917年	517	—	1,061	—	989	—			
1920年	529	+12	1,016	-45	1,082	+93			
1925年	525	-2	895	-56	1,193	+70			
1929年	507	-18	885	-10	1,283	+90			
1932年	476	-31	742	-143	1,546	+263			

【表 1】⁹⁾에서 보는 바와 純小作農의 增加는 韓國農民의 階級이 大部分 小作農으로 轉落하여 1933年에는 全體農家 3,009千戶 가운데 2,287千戶의 小作農으로 全體 農家의 76.1%를 차지하고 있음⁽¹⁰⁾은 1930年代 農村 生活相이란 바로 小作農의 生活相이라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처럼 大部分의 小作農은 爪취와도 같은 엄청난 小作料를 물었으나 당시의 小作料는 物納形態가 가장 많은 分益小作制인데 日人이 日人 農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全生產價值의 74~76%를 地主에게 小作料로 갖다 주었다⁽¹¹⁾는 것이다.

이처럼 절박하고 窮乏한 農村實情 앞에 良識 있는 作家라면 幻想의 世界에 安住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現實이 崔載瑞의 지적처럼 農村의 窮乏相이란 問題로 作家를 끌어들인 것은 조금도 이상스러운 現象이 아니다. 이런 現實 앞에 裕貞은 故鄉 <실례>에서 文盲退治 運動을 展開하였으며 <農友會>를 設置하여⁽¹²⁾ 30年代 궁핍에서 벗어나려고 企圖했다. 그려므로 金裕貞의 作品에서 보여지는 農村의 現實이란 牧歌的인 것도, 리리시즘도 아닌 30年代 現實 바로 그것이었다.

(2) 作品에 나타난 農村現實

(9) 金文植外著 : ibid, p. 37

(10) 金文植外著 : ibid, p. 38 參照

(11) 金泳謨 : 社會階層의 變化, 韓國現代史 8卷所收, 新丘文化史, p. 288

(12) 1932年 東亞日報의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夜學을 實施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錦屏義塾>이란 간이 학교로 設立되었고 <農友會>는 成人을 對象으로 하여 ①도박과 飲酒禁止 ②기풍을 바로 잡으며 相互協同할 것 ③共同資金을 만들어 低利로 빌려 주는 것을 目的으로 했다. 李成美 : 새 資料로 본 金裕貞의生涯, 文學思想通卷 22號所載, p. 313 參照

金裕貞의 小說에서 主人公은 한결 같이 바보스러운 人物로 바보列傳⁽¹³⁾을 연상시켜 준다. 그러나 그들 바보스러운 人物들은 또한 가난한 小作人們이거나 農事도 지을 수 없는 無業者들이다. 裕貞의主人公은 돈 이원을 구하기 為해 몸을 팔고(소낙비), 자기가 지은 벼를 훔쳐야 하고(단무방), 데릴사위로 노동을 찾취 당하고(봄·봄), 아내를 팔고(가을), 들병이 신세를 부려워하고(안해, 솔), 마름의 아들에게 몸을 버리는(산골, 둥백꽃) 人物들이다. 이러한 人物의 비참한 生活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의 독특한 諧謔的 Tone에 依하여 유모리스하게 表現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그들 人物의 樣相을 通해 30年代 農村 現實이 어떻게 受容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農村을 素材로 한 作品系列은 한마디로 農民(小作人)의 窮乏相을 말해 주고 있지만 그러한 現象을 나타내기 為해 使用되어진 事件을 中心으로 살펴 보면 賣淫과 關係있는 것(第1類型)과 다음으로 궁핍과 關係있는 것(第2類型), 身分關係를 다루고 있는 것(第3類型), 들병이와 關係있는 것(第4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第1類型에 該當되는 作品으로 <소낙비>, <산골 나그네>, <가을>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들 作品의主人公들은 한결같이 快樂을 排除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면서 모두들 本男便에게 더할 수 없는 愛情을 가지고 있다. <소낙비>에서 아내는 男便의 노름 밀천을 장만하기 위해 마을 부자 이주사에게 몸을 판다. 그리고 난 뒤에 아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을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꿀뻑 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 좋게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¹⁴⁾(傍點筆者)

이러한 아내의 所行을 不道德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남편과 의 좋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賣春은 결파적으로 窮乏이 가져 온 가장 큰 피해라 하겠다. 한편 아내는 男便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男便이 아내를 때리는 行爲도 새로운 삶을 영위하가 為한 것이다. 男便是 원래 小作人으로 열심히 일했으나 빚만 지고 세간살이를 그만두고 야반逃走한 人物이다. 그래서 客地에서 땅도, 품팔이도 할 수

(13) 李在銘: 金裕貞의 作品 世界의 二面性(韓國短篇小說研究所收), pp. 239~243
参照

(14) 金裕貞: 소낙기(韓國短篇文學全集第二卷, 白水社刊), p. 320

없어 투기심을 가지게 된 人物이다. 그렇다고 노름으로 한 밀친 잡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월! 수나 좋아서 이 이월이 조화만 잘 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삼사십월 따서 동리의 빛이나 대충 가리고 웃 한별 지어 입고는 진저리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장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들어서 다구자게 벌으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굽어 죽을 맛이야 없었다. (15)

이와 같이 素朴한 꿈을 達成하기 為하여 몸을 팔아야 하는 農村의 窮乏相을 보여 주려는 作者의 意圖는 東仁의 <감자>나 孝石의 作品에서 보이는 그것과는 性格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裕貞의 作家意識은 <가을>에서 더욱 具體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에서 主人公 <복만>이는 自己의 아내를 팔아 먹는다.

매매 계약서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 안해의 대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말

황 거 풍 전¹⁶⁾

一金五拾원에 아내를 팔아 먹는 <복만>이는 一年 農事지어 <빚도 다
못 가린> 形便이었다. 그것은 困年으로 因한 것도 아니며 小作料의 過多負
擔이 勿論 그 原因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過多한 小作料는 小作人에게 負債
만을 加重시켰다. 1930年的 調査에 依하면 全小作農의 75%에 이르는 農民
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殖產銀行의 것이 39.2%, 東拓의 것이 14.6%,
금융조합의 것이 17.4%로 合計 70%를 넘고 있으며 利子는 年 15~35%의
것⁽¹⁷⁾이었다는 事實을 念頭에 둘 때 가진 것 없는 小作人으로서는 유일한

(15) 金裕貞: 소나기, p. 320

(16) 金裕貞 : 가율(短篇集 鳴々菴), pp. 350~1(本考에서 사용한 短篇集「鳴々菴」은筆者의 所藏으로 世昌書館刊의 그것과는同一하지 않으며 發行處와 年代는 落帳으로 확인할 수 없다. 參考로 收錄된 作品名을 目次대로 記하면, <鳴々菴, 金리는 鳴
발, 봄·봄, 안해, 산풀, 산풀 나그네, 따라지, 떡, 만무방, 쇠(晝), 두꺼비,
봄과 따라지, 金(금), 貞操, 夜櫻, 가율, 심청, 이런 音樂會, 연기, 출판 이야기,
별별> 等21篇이 收錄되었으며 總 409page로 되어 있음, 以下 作品은 上記
作品集을 使用했음.)

(17) 洪以燮：韓國現代史，第4卷，新丘文化社，p. 42 參照

<재산>으로 아내밖에 없는 것이다. <복만>이는 아내 판 돈으로 동네 빚을 갚고 行方을 감춘다. 그리고 팔려 간 <복만>의 처도 팔려간지 나흘만에 行方을 감춘다. 한편 <산풀 나그네>도 병든 男便을 爲해 假裝結婚을 하고 새 新郎의 웃가지를 들고 야반도주를 한다는 點에서 <소나기>나 <가을>과 軌를 같이 한다. 이상의 作品에서 貞操를 파는 行爲를 作者는 不道德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30年代 窮乏化가 빚은 現實의 不條理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第2類型에 該當하는 作品으로는 <먹>과 <만무방>이 있다. 특히 <만무방>에 對해서는 申東旭教授의 論考⁽¹⁸⁾에 仔細한 言及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곱살 된 <우이>는 좁쌀죽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아버지가 나무를 팔러 가기 위해 먹는 죽을 먹지 못하게 하자 <당할 새끼 저만 처벌으려고 일흔 죽어버려라. 염병할 자식>하고 욕을 펴붙는다. 그리고 나릿액 잔치에 가서 국밥 한그릇과 시루액, 팔액, 백설기, 꿀바른 주액을 차례로 먹고 고생하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욕이 아버지다. 그는 <지금은 발霉기 하나 놀일 거 없어도 이래뵈도 한 때는 다—하고 펄쩍 뛰고는 지난 날 소작인으로서 땅을 팔 수 있었던 그 행복>⁽¹⁹⁾마저 빼앗긴 人物이다. 그래서 나무를 팔아 연명하는 人物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릿액 작은 아씨는 <우이>를 마치 무슨 노리개처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爲해 손뼉을 쳐가며 먹기를 強要하는 가진 자의 俗物根性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만무방>과 함께 30年代 小作人이 얼마나 가난한 生活을 했던가를 잘 보여준 作品이라 하겠다.

第3類型으로는 <산풀>, <봄·봄>, <동백꽃>을 들 수가 있다. 이들 作品에서는 가진 者의 非人間的이고 利己的인 俗物主義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뿐이의 貞操를 유린하고 소식 조차 없는 도련님(산풀), 허울 좋은 데 릴사위란 名目으로 勞動力を 착취하는 장인(봄·봄), 自己의 愛慾을 채우기 爲해 <나>를 利用하는 젊순이(동백꽃)는 弱者의 苦惱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作品이 가지고 있는 問題는 農村의 窮乏問題를 벗어나 階層間의 對立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동백꽃>의 경우 <平和로운 아르까디아의 문학 乃至 감미로운 리리시즘의 表白>⁽²⁰⁾으로 본다는 것

(18) 申東旭 教授의 <韓國現代文學論>과 <金裕貞考>(現代文學通卷 169號)가 있음.

(19) 金裕貞: <먹(동백꽃 所載)>, p. 159

(20)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p. 266

金允植, 김현: 韓韓文學史, 民音社, p. 197 參照

은 正當한 것이 되지 못한다. <동백꽃>에서 턱은 象徵的인 存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나 <점순이>가 現實로서의 存在라 할 때 <탁>은 精神的 世界를 意味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現實 世界에 있어서 <나>는 <점순이>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對象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句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신거린다. …中略…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21)

이와 같이 마름과 小作人과의 關係設定으로 對立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마름의 횡포가 소위 탁싸움으로 表現된다고 보겠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점순>네 턱을 죽임으로써 精神世界에서의 설욕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裕貞文學에서 階層間의 對決意識이 가장 强하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類型의 作品에서 Antagonist인 도련님과 장인, 그리고 점순이는 甘言으로, 혹은 협박으로 自己의 慾心만을 채운다는 點은 적어도 30年代 現實과 關聯하여 볼 때 그들은 日帝를 象徵하고 있다고 하겠다. (22) 그러므로 第 類型의 作品系列은 日帝下의 現實을 劇的으로 提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

第4 類型으로는 <안해>와 <솔>을 들 수가 있다. <안해>의 이야기는 가난을 벗어나기 爲하여(男便是 쌍지게질로 나무를 팔아 延命해 간다.) 내가 들병이(출장사)로 나가기를 願한다. 作者는 아내가 들병이로 나가려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년이 떠국이 농간을 나보담 한결 의뭉스럽다. 이깐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우리 들병이로 나가자고. 땅은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참 훌륭한 생각이다. 미찌는 농사보다는 이밥에, 고기에, 웃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이냐, …中略… 들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좀 한바탕 먹어 보자는 속이겠지 (23)(傍點筆者)

이처럼 그들의 慾望은 <밥좀 먹어 보는 일>이다. 이러한 그들인자라倫理的 感性的 欠乏를 탓할 수 없다. 그리하여 남편은 고단한 몸으로 아내에

(21) 金裕貞: 동백꽃(단편집 동백꽃 所載), p. 5

(22) 金裕貞 小說에 있어서의 象徵性 問題에 對해서 趙雲濟는 <……主人公들은 故鄉을 떠난 失鄉民들이며, 마름 밑에서 小作는을 부치는 小作人們이다. 즉 나라를 빼앗겨서 정처없이 삶을 찾아 헤매는 우리 民族을 主人公 하나하나가 象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우리의 財產이나 노동 뿐이 아니라 貞操까지 빼앗긴 것>이라고 했다. :暗示와 象徵의 유모어(文學思想 22號), p. 299 參照

(23) 金裕貞: 안해(短篇集 동백꽃), p. 76

계 노래를 열심히 가르치곤 한다. 아내도 들병이로 나간다는 속셈으로 야학에 가서 신식 唱歌도 배우고 담배도 술도 배운다. 이러한 <아내>의 精誠을 <몽태>놈이 역이용하여 손을 댄다. 그리하여 아내의 들병이로 나가려는 꿈은 雾散된다. 그러자 男便是 다음과 같이 내뱉는다.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中略… 연해 차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 도 말고 줄 때 같은 아들로만 한 열 다섯이면 죽하자. 가만 있다, 한놈이 일년에 벼 열섬씩만 빙다면 열다섯이니까 일백오십섬, 한섬에 더도 말고 십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일천오백원이지. 일천오백원, 일천오백원, 사실 일천오백원이면 어 이구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이년의 배 속에 일천오백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짜여도 나보담은 낫지 않은가.²⁴⁾

이러한 幻想은 단순한 幻想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農民의 強한 現實認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술>은 근식이가 들병이와 살림을 차리기 위하여 自己집 세간은 물론 술까지 갖다 바치고는 들병이의 본남편의 出現으로 敗家亡身하는 이야기다. 이 作品에서도 근식이가 들병이에게 사랑을 느낀 結果로 살림을 꾸미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시 가난한 生活의 도피처로 들병이에게 依存하려는 것이었다. 그들 가난한 農民에게는 잘 산다는 꿈은 없다. 다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問題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들병이의 生活을 한없이 부려워 하고 있다.

못사람의 품으로 옮아 앉기며 예속이라는 들병이가 말은 천하다 할망정 힘 안드리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계체 흘리고 엉벼드는 뜻놈을 이 손 저 손으로 맘대로 후물르니 그 호강이 바히 고귀하다 할지라.⁽²⁵⁾

이러한 逆說的인 表現은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 주려는 것임은 말 할 必要도 없다. 이와 같이 들병이를 中心으로 展開되는 作品도 한결같이 農村의 窮乏化에서 提起되는 가난의 問題에 焦點을 두고 있음은 裕貞文學이 30年代 韓國農村現實을 누구보다 透澈하게 認識하고 있었다는 事實과 一致한다. 그러나 이처럼 30年代 農民의 궁핍상을 여러局面으로 把握하고 있는 裕貞文學은 그의 유머러스한 技法에 依하여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克服⁽²⁶⁾한다는 事實을 認識할 때 그가 파악하려는 것은 作家의 個人的 趣向이 問題視되지 않고 30年代 現實의 不條理와 비극이 갖

(24) 金裕貞: 亞海, p. 78

(25) 金裕貞: 醉, ibid., p. 243

(26) 金柱濬: 文學批評論, 悅話堂, p. 114 參照

는 意味를 歷史全體와 社會全體와 關聯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點은 높이 評가되어야 할 것이다.

2. 金을 通한 現實認識

(1) 30年代 現實과 金礦

韓國은 李朝時代까지 金礦은 禁礦으로 金의 採礦을 禁止했다.⁽²⁷⁾ 그러나 舊韓末 外國인이 그들 見聞記에서 <황금의 나라(Nation of Gold)>로 紹介되어 1890年代에는 韓國은 外國인의 投機場이 되었다.⁽²⁸⁾ 그리하여 金脈이 보이면 朱書로 <No Touch>라 써붙였다. 이러한 여파는 韓國人에게 까지 미쳐 많은 사람이 金礦에 热을 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採礦技術도 資金도 貧弱했다. 그러므로 當時의 德大들은 地表의 金만을 採礦했다. 그리하여 1920年代에는 도처에 表面만 뚫인 것으로 당시의 外國人은 <벌집같이 구멍내놓은 山 Beehive Mountain>⁽²⁹⁾에 놀랐다.

이처럼 貧弱한 技術과 資金으로 제대로 採礦하지 못한 韓國의 金礦業은 30年代에 접어 들면서 活氣를 띠기始作했다. 그것은 물론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 展開된 것이다.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日帝는 土地調查以後 東洋拓殖會社를 設立하여 韓國을 所謂 그들의 食糧供給地化하여 農民의 窮乏化가 極에 達하였으며 더以上 收奪할 수 없게 되자 地下 資源으로 關心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農村의 窮乏化로 많은 離農民問題가 擡頭되었고 그것을 解決하기 為해서도 鑛業은 안성맞춤 이었다. 그리하여 1931年에는 第6代 총독으로 부임한 宇垣一成은 北鮮 개척과 地下資源開發에 注力했다.

이러한 鑛業의 比重을 높이 認識한 理由를 李基白 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주고 있다.

1930年的 金產高는 5,876kg, 620萬圓으로서 同年の 總鑛產額의 約 半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金礦業이 國家의 奬勵를 받으면서 급격한 發展을 하게 된 것은 日本이 大陸侵略을 為한 戰爭에 필요로 하는 石油, 鋼鐵, 工作機械 等을 美國 등 海外諸國으로부터 輸入하는 데는 金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³⁰⁾

이와 같이 侵略戰爭을 準備하기 為하여 허울좋은 北鮮開拓 내지 地下資源

(27) 李圭泰：開化百景，第3卷，新太陽社，p. 272

(28) 1895年에는 美國인이 平北 雲山金礦을, 1896年에는 러시아가 함북 鏡城과 慶源 金礦을, 1898年에는 英國이 殷山金礦을, 同年に 독일은 江原道 堂峴金礦을 採礦했다.

(29) 李圭泰：op.cit, p.276 參照

(30) 李基白：國史新論，第一出版社，p. 363

의 개발로 韓國은 30年代에는 金의 供給地로 變하고 말았다. 이러한 事情은 韓昌浩의 論考⁽³¹⁾에 依하면 日帝는 이미 1915年에 韓國內의 鑛業權을 獨점하기 為하여 「鑛業令」를 公布하였고 1932年에는 產金 1억圓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產金을 嘉獎하고, 다시 1937年 3月에는 軍需品輸入을 為한 對美送金이 개시되자 產金 5個年計劃을 수립하는 同時に 그 해에 「產金令」를 發布하고 또 이듬해에 「朝鮮主要鑛物增產會」를 公布하였으며 거액의 예산으로 採鑛獎勵金, 鋸岩機設備補助, 金鑛共同施設補助金 等을 支辨하는 한편 金產道路改修, 產金送電施設, 一般助成施設의 設備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支援에 의하여 金鑛은 1911年度에 796鑛區가 1937年에는 6,513鑛區로 늘어났으며 產金量도 1927年에 5,341kg이던 것이 1937年에는 19,813kg으로 다시 1939年에는 25,759kg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30年代의 金鑛熱은 日帝의 韓國民의 收奪政策의 일환으로 展開되었고 土地를 잃은 離農民의 또 다른 집결지가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 속에서 裕貞은 <금 따는 콩밭>을 비롯한 일련의 作品을 남겼다.

(2) 作品에 나타난 「金」의 認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노다지(金)>, <금 따는 콩밭>, <연기> 등은 30年代 金鑛景氣가 가져온 問題點을 提示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이를 作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실상 金裕貞의 作品에 있어서 金을 素材로 한 作品系列을 단순히 일확千金에의 꿈⁽³²⁾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任重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作家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金에 대한 關心은 확실히 <달혀진 社會>에서 <열린 社會>에로 轉向할 可能性을 暗示한다. 원시적 인 가난에서 人間을 解放시킬 力量을 돈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金裕貞이 追求한 金의 얘기는近代化推進이라는 事實보다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現金을 노리는 그 愚行을 경계하는 意味가 지배적인 것 같다. ⁽³³⁾

以上의 陳述에서 보여지는 것은 금광=일확천금이라는 等式으로 單純化하여 處理한 결과 빚어진 結論이다. 裕貞의 作品에서 보여지는 것은 좀 더 社會的 文脈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는 <금 따는 콩밭>에서 30年代의 金鑛景氣를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31) 韓昌浩：日帝下의 韓韓鑛工業에 關한 研究(日帝下의 經濟侵奪史所收) 以下의 論述은 上記 論文을 參照했음.

(32) 金允植, 김현(韓國文學史 p.132参照)과 金炳翼(文學思想 22號 p.282) 等 상당한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다.

任重彬；op.cit. p.152

시체(時體)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설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간 비령뱅이 밖에 는 더 못된다. 얼마 만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 때는 뭘 파 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짜기나 한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하면 금점으로들 내빼지 않는 가.⁽³⁴⁾

이러한 表現은 前章에서 말한 <Beehive Mountain>을 잘 나타내고 30年代 金鑛熱을 反映한 것이다. 그러나 <金 따는 콩밭>에서 <영식>이는 <금점이란 칼 물고 뼘뛰기>라 믿는다. 그러나 금점으로만 돌아다닌 수재의 세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콩밭을 망친다. 이러한 <영식>의 行爲를 일확천금의 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앞의 引用에서와 같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은 칠원의 빚을 지고 있어 <비령뱅이> 밖에 될 것이 없다. 이런 狀況下에서 <영식>의 行爲는 삶을 爲한 안간힘이라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콩밭에서 金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平凡한 日常生活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콩밭에서 金이 날 풀은 아주 꿈 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에는 노상 침만 삼키면 그놈 코다리를 짜장 먹어보겠구나만 하여도 속이 메질듯이 짜릿하였다. 젖집 양근액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 준 훈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金이나 평평 쏟아지면 훈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로고 하리라.⁽³⁵⁾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人物의 素朴한 希望을 보게 된다. 고작 金을 캐내어 코다리(명태)나 훈고무신을 신는다는 素朴한 꿈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行爲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처럼 素朴한 꿈도 實現되지 않는다. 그것은 日帝下의 現實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作品 <金(노다지)>에서 보여지는 것도 가난한 鑛夫의 悲劇的 삶을 그려 주고 있다. 主人公 <덕순>이는 金을 훔쳐오기 爲하여 돌로 自己 발을 깨어 깨진 발에 金을 넣어 묶어서 친구에게 업혀 나온다. 그러면서 감독에게 들키거나 혹은 金이 빠지지나 않는지 친구에게 물곤 한다. 그것은 바로 가난과 죽음과의 대결이다. 가난을 이겨보려는 鑛夫의 悲劇的 生活樣式은 결코 허황된 일확千金의 꿈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는 點을 忘却할 수 없다.

作品 <연기>는 內容에 있어서 위의 두 作品과는 性質이 다르다. 그것은

(33) 金裕貞: 金 따는 콩밭(단편집 동백꽃) pp. 22~3

(34) 金裕貞: 금 따는 콩밭, p. 23

裕貞의 自傳的 性格을 띠는 것으로 都市 知識人이 失業者로서의 悲哀를 그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연기>는 다음 章의 都市를 通한 現實 인식이란 問題에서 取扱하려고 한다.

以上에서 <金 땍는 콩밭>과 <金>이 지니고 있는 問題는 적어도 1930年代의 農民收奪政策으로 因한 離農民이 그들의 삶을 營爲하기 위하여 鐵山으로 몰려든 時代的 狀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鐵山은 그들 鐵夫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가져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식>이도 <여순>이도 한결같이 비극적 狀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을 通해 裕貞이 본 現實은 農村의 그것과 같이 30年代 日帝의 收奪을 告發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 都市를 通한 現實認識

金裕貞의 小說에 있어서 都市를 中心으로 展開되는 일련의 作品은 失職者의 悲哀, 都市勞動者 그리고 女給의 이야기가 主된 것이다. 그것은 역시 30年代 現實의 한反映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任重彬은 裕貞의 都市를 무대로 한 作品의 性格을 말하여

都市에서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갈등에 충만되어 있다. 市民社會의 一員으로서 멋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면서 밭 붙일 끗 없는 룸펜의 生活相⁽³⁶⁾

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실상 自傳的 小說인 <따라지>나 <연기>나 女給의 이야기인 <夜櫻> 등은 30年代 失職者 問題를 浮彫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30年代 小說은 상당한 數가 世態小說로서 이들 作品에서는 日帝治下의 이 나라의 암담한 풍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암담한 風俗圖를 그리는 背後에는 日帝의 가혹한 植民地政策에 대한 소극적인 反抗의 姿勢가 뒷받침이 되어 있고 이처럼 惡辣한 現實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서글픈 긍지와 이러한 社會條件 속에서 生計를 꾸려가지 못하는 자신의 無能力에 대한 自嘲의 무드가 基調⁽³⁷⁾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 失業者群은 大部分이 知識人이라는 것은 30年代는 知識人의 受難期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1930年 8,500名의 知識人中 就職이 可能한 것이 20%, 就職이 전혀 不可能한 것이 80%에 이르렀다는 事實⁽³⁸⁾은 30年代 失業問題의 重大性을 端의 으

(36) 任重彬 : 前揭書, p. 152

(37) 千二斗 : 小說에 나타난 失職者 問題(世代 64年 1月號), p. 197 參照

(38) 朝鮮日報社說, 1930年 12月 6日字 參照

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심한 就職難은 生活難을 불러 일으켰고 그結果女子가 손쉬운 生活戰線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女給의 問題는 바로 失業問題와 生活苦라는 問題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30年代의 小說에 보여지는 失業問題는 그 前代나 解放以後의 그것과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이 點에 對하여 30年代 失職者의 性格을 千二斗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 주고 있다.

1930年代의 世態小說에 있어서 失職者 이야기는 「어느 한 時期의 不幸한 社會現象」이라는 觀點 위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다분히 時代의 歷史的 性格을 떠우는 것이었다. …中略… 따라서 失職을 당한다거나 求職을 하지 못하는 것은 歪曲되고 모순된 社會條件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社會條件의 歪曲과 모순은 마땅히 除去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로 되어지는 것이다.⁽³⁹⁾

이러한 陳述을 肯定的으로 認定할 때 營萬植의 一聯의 作品과는 性格의 으로는 異質性을 보이지만 그 志向하는 目標는 裕貞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지>는 失業에 依하여 製服工場에 직공으로 다니는 누님에게 벌붙어 사는 知識人의 哀歡을 그려 주고 있다.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왜 이리 할 일이 없는지. 밤낮 방구석에 팔장을 지르고 명하니 앉아서 얼이 빠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을 뒤쓰고는 출창같이 낮잠이 아닌가.⁽⁴⁰⁾

이것은 主人公을 두고 한 말이지만 主人公의 失業이, 能力이 不足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社會的 모순이 빚은 結果인 것이다. 그리고 <따라지>에서 보여지는 모든 人物은 한결같이 <따라지>人生들이다 몸을 파는 카페 女給, 빼쓰·걸인 딸에게 엎혀 사는 병든 아버지, 이들은 모두 30年代 韓國社會의 밑바닥 人生들임을 裕貞은 보여주고 있다. 人生의 밑바닥에서 삶을 꾸려가는 그들인지라 방세마저 제대로 낼 수 없는 形便이다. 그리하여 主人 아줌마가 조카를 앞세워 강제로 내쫓을려고 할 때 그들 가난한 사람들은 合心하여 오히려 主人을 골탕먹인다. 그것은 <가진 者>에 對한 反抗인 동시에 <가진 者>의 횡포를 보여 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연기>에서도同一한 立場을 보여주고 있다. 가진 者 앞에서 더할 수 없이 비굴하고, 없는 자에게 갖은 횡포를 부리는 人間의 俗物根性을 보여 주고 있

(39) 千二斗：前揭書, p.198

(40) 金裕貞：따라지, p.122

다. 그리고 <심청>에서는 所謂 大都市 建設이라는 外華 속에 감추어진 가난한 사람의 生活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거지를 청결하라. 땅바닥의 쇠똥말똥만 칠게 아니라 문화생활의 장래물인 거지를 먼저 치우라. 천당으로 보내든, 산채로 뮤어 한강에 빼우든…….⁽⁴¹⁾

이처럼 30年代 日帝의 大都市의 虛妄을 꼬집고 있다. 이러한 批判精神을 頗面 그대로 받아들여 文明生活을 為해 장애물(거지)을 치워야 한다는 主張⁽⁴²⁾으로 본다는 것은 裕貞의 作家精神을 安易하게 받아들인 結果인 것이다. 裕貞이 主張한 바는 大都市 建設보다 가난한 거지의 救濟가 더욱 時急한 問題임을 力說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봄과 따라지>에서는 거지에 對해 同情的인 面貌를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땡볕>은 離農民이 都市 勞動者의 悲劇的 生活을 그려 주고 있다.主人公 <덕순>이는 아내의 이름 모를 병을 병원에 가면 돈을 주며 고쳐 준다는데 希望을 걸고 한 여름 <땡볕>에 아내를 지고 병원에 간다. 그러나 醫師의 진단 결과는 고작 백속에서 죽은 아이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덕순>이는 간호부에게 다음과 같이 물는다.

「월급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제 병 고쳐 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오.」⁽⁴³⁾

自己 아내의 病도 고치고 自己의 가난한 生活도 免해 보려는 二重이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아내를 지게에 지고 自己의 전재산 4천으로 아내에게 냉수 한그릇과 왜역 세개를 벼이자. 아내는 지게 위에서 유언을 남기며 죽어 간다. 실상 <땡볕>은 都市 노동자의 生活의 비참상을 劇的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裕貞이 다루고 있는 都市의 問題는 農村, 鎳山村과 같이 1930年代 韓國이 日帝의 收奪로 얼마나 피폐했으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民族이 얼마나 비참한 生活을 했던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點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強調해 둘 것은 序論에서도 밝혀 둔 바와 같이 그의 作品

(41) 金裕貞: 심청, p. 362

(42) 任重彬: 前揭書, p. 157 參照

(43) 金裕貞: 땡볕, p. 406.

에 있어서 文體的 特性으로 앞에서 詳論한 事實이 表面에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것은 웃음을 自己 방어 수단(Bergson)으로 보거나 중압감이나 苦痛으로부터 解放하는 效果를 認定한다면 裕貞文學의 内面에 도사리고 있는 批判意識은 充分히 파악되어 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日帝治下라는 時代的 狀況 아래서 正面으로 現實을 批判할 수 있는 自由가 박탈된 時代의 作品이라는 事實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結論

以上에서 金裕貞 文學에 나타난 現實認識과 그것이 어떻게 作品에 受容,反映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것을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30年代 農村의 窮乏化를 個人的 次元에서 把握하지 않고 社會的側面에서 파악하여 日帝 植民政策의 모순과 不條理를 克明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牧歌의이라는 <통백꽃>도 利己의 支配者의 面貌를 강하게 보여 줌으로써 단순히 牧歌的 領域에 머물지 않는다는 點.

둘째로 1930年代의 金鑛景氣를 通하여 日帝의 地下資源 收奪政策이 가져온 離農民의 悲劇的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30年代의 金鑛景氣는 侵略者가 그들의 經濟的 富를 펴했을 뿐 被植民人에게는 역시 궁핍화를 加速化시켰다는 點을 지적해 주고 있다.

셋째로 都市를 무대로 펼쳐지는 作品系列에서도 失業者, 女給, 都市 勞動者를 通하여 30年代의 궁핍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點을 지적할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이 金裕貞은 30年代에 있어서의 窮乏化現象을 지극히 靖정하고 客觀的으로 把握하고 있다. 그가 把握한 現實은 不條理와 모순으로서 그것을 30年代 日帝治下라는 現實과 연结지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現實의 極端에 절망하지 않고 보다 높은 次元의 유우미를 意圖的으로 使用하므로서 傳統的情緒와 現代的 狀況認識 間의 調和를 이루어 준다는 것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